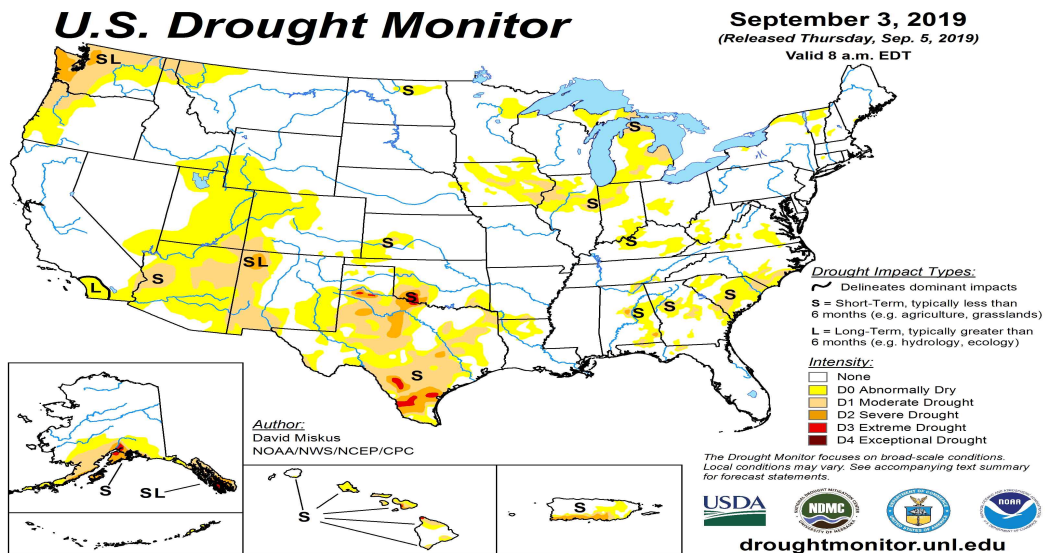


9월 1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76)

□ 미국 기후 현황(9/1~9/7)

허리케인 도리안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기 전에 플로리다 동부 해안을 위협했는데, 결국 남북 캐롤리나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해터러스 곁에 사태를 일으켰다. 바하마 북부를 황폐시킨 5급 허리케인이 1급으로 약화된 그 폭풍은 9월 1일 최대 지속 풍속이 185 mph이던 것이 90 mph로 약화되어 9월 6일 아침에 해터러스 곁을 지나갔다. 대체로 남북 캐롤라이나 해안에 제한적으로 총 4-8인치 또는 그 이상의 강우가 내렸고 허리케인 세력의 돌풍 (74 mph 또는 그 이상)이 불었지만 대서양 연안 중부와 남부에 있는 광범위한 해안 지역에도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와 열대성 폭풍 세력의 바람 (39-73 mph)이 관측되었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9월 6일 폭풍 해일도 일어났는데 해터러스 곁의 팜리코 사운드 쪽에서는 2시간 동안 7 피트가 넘는 해수면 상승이 관측되었다. 또한, 허리케인은 뉴잉글랜드 해안을 둘러싸기도 했다. 하지만 도리안으로부터 받은 농업 피해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무시할 만 했다.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리나 일부에서는 만개한 목화송이가 바람이나 강우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도리안의 영향권 밖에서는 텍사스 북부, 서부, 남부에 소나기가 대체로 드문드문 내렸다. 텍사스에 내린 비는 단기적으로 발생한 열대성 폭풍 페르난드와 관련되어 있었다. 페르난드는 9월 4일 멕시코 북동부에서 사태를 일으켰는데 최대 지속 풍속이 45 mph 가까이 되었다. 먼 북쪽의 오대호와 북동부 주들에서는 시원한 소나기성 날씨가 우세하였다. 노스다코타 동부에서부터 메인까지는 주간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평균 5° F 낮았다. 중서부를 덮고 있는 넓은 지역은 7주 연속 평년 근처 또는 그 이하의 온도를 겪고 있어서 옥수수과 콩의 발달 속도가 정상보다는 느리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 밖의 지역은 늦계절 폭염이 여름작물의 성숙을 촉진했다. 서부 일부에서는 주간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았고 평원 중부와 남부에서부터 남동부까지의 많은 곳들은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높았다. 평원 남부에서부터 애팔래치안 산맥 남부까지는 폭염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 덕분에 밀 파종 준비와 옥수수와 벼의 수확 등, 야외 작업을하기에 유리하였다.



□ 농업 현황 요약(9/2~9/8)

캘리포니아, 네바다, 태평양 북서부, 로키 산맥, 남서부 일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8° F 이상이였다. 반면 노스다코타,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위스콘신, 메인 일부에서는 기온이 4° F 이상이였다. 나라의 많은 곳에서 평년 근처 또는 이하의 강수량이 관측되었다. 하지만 허리케인 도리안이 상당한 비를 몰고 와서 노스캐롤리나와 사우스캐롤리나의 해안 지역에 있는 어떤 곳들에서는 총강수량이 6 인치 또는 그 이상이였다.

□ 세계 기후 현황(9/1~9/7)

■ 유럽: 유럽 북동부는 강우로 가뭄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스페인과 발칸 반도 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다른 곳들에는 다양한 수준의 건조와 가뭄이 계속되었다. 북이탈리아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헝가리 및 폴란드의 많은 곳까지 중간-강한 비 (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보 고되어 단기 가뭄을 완화해주었고 겨울 작물 파종과 출현을 위해서 시기적절한 수분을 공급 해주었다. 반대로 프랑스와 독일은 전체적으로 비가 가볍게 내려서 (5 mm 이하) 프랑스 북중부와 독일 북동부 일부에서는 단기 건조 (30일 강수량이 평년의 25% 이하)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이곳들은 겨울밀과 유채 파종을 하려면 하루 속히 수분이 필요하다. 반면에 북해 인근의 작물 재배지는 잉글랜드 북부에서부터 스칸디나비아까지 지난 주 강수량이 25-100 mm로 수 분 공급량은 여전히 좋은 편이었다. 유럽 남동부에서는 늦여름 폭염 (32-34° C)과 건조가 옥수수, 해바라기, 콩의 성숙과 건조를 가속화시켰다. 다만 격심한 단기 가뭄 (30일 강수량이 평년의 10% 미만)이 겨울 작물 파종과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량을 줄였다. 스페인에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는데 남부는 여름 가뭄 (90일 강수량이 평년의 50% 미만)이 왔지만 북부는 대조 적으로 최근에 토양 수분이 개선되었다 (60일 총강수량이 평년의 100-200 %).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여름작물의 성숙과 건조를 점점 더 가속화 시켰지만 가뭄 걱정을 증폭시켰다. 우크라이나의 북부와 서부는 대체로 좋았던 여름 재배 계절 이후 단기 가뭄 (8월 강수량이 평년의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60일 강수량이 평년의 50% 미만이었음)이 발생하여 나중에 발달하는 옥수수와 콩의 수확량 전망을 다소 떨어 뜨렸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부터 서러시아까지는 여름 강수량이 평년 근처 또는 그 이상으로 높아서 옥수수와 해바라기에 좋았으며 지난주의 날씨는 건조하고 따뜻하 여 (평년보다 2-6° C 이상 높았음) 이른 수확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흑해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겨울밀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지난 30일 간의 격심한 건조 (강수량이 지역적으로 평년의 10% 미만)로 제한되었다. 다만, 러시아 남서부와 우크라이나 남동부에는 이번 주에 비 (10-25 mm, 지역적으로 그 이상)가 내려서 지역적으로 아주 많이 필요했던 표토 수분을 공 급해주었다.

■ 동아시아: 태풍 링링이 지난 주 후반 동안 중국 동해안에서 벗어나 후 한반도에서는 사태를 일으켰다. 이 폭풍은 중국 남동부 일부와 북동부의 많은 구역에 걸쳐서 강한 소나기 (25-100 mm)를 내렸지만 가뭄이 만연한 동부에는 거의 비를 내리지 않았다.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이 수분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여름작물들에게 유익한 늦은 계절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이 비 (50-200 mm)는 특히 가뭄이 심각했던 한반도에서는 단비였다.

■ 호주: 퀸슬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전체는 건조한 날씨가 가뭄을 계속 고착시키고 있어서 밀과 기타 미성숙 겨울 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었다. 계속 되고 있는 건조가 많은 겨울 작물들의 성숙을 가속화시켜서 어떤 지역에서는 수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가뭄이 워낙 심해서 현재의 재배기 단계에서는 비가 내려도 겨울 작



물에게 큰 유익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수 공급원을 재충전하고 여름작물 파종을 위한 표토의 조건을 돕기 위해서라도 비가 오는 것은 시급하다. 호주 남동부는 드문드문 내린 소나기 (5-25 mm)가 평년 날씨보다 건조한 기간 이후에 작물 조건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향후 몇 주간 작물들이 생식 성장 단계를 지나게 되어 있어서 수확량 전망을 좋게 유지하려면 비가 더 내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밀 벨트의 다른 곳으로서 서호주에는 주초에 소나기 (5-25 mm)가 내려서 이후 건조한 날씨가 돌아오기 전에 밀, 보리 캐놀라에게 도움이 되었다. 남부와 서부는 평균 기온이 평년 근처 (평년의 1° C 이내) 였고 어떤 날 밤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동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1-3° C 높아서 작물의 발달을 가속화시켰다.

■ 아르헨티나: 지역 전체가 건조하고 계절과 달리 추운 날씨가 우세하여 겨울 곡물이 느리게 발달하고 있어서 현재 남아 있는 계절 포장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대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 C 낮았고,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는 밤 최저 기온이 -5° C 이하로 떨어졌다. 북쪽으로 코르도바, 산타 페, 엔트레 리오스의 남부 구역까지 주간의 많은 날 동안 결빙이 일어났고 주말에서야 날씨가 다소 따뜻해졌다. 지난 주 따뜻해지는 기간 동안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10도 대 중간 범위에 있었고 파라과이 국경 근처는 30도 대에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북부와 중부의 많은 구역들이 이 주간에 완전히 건조했는데, 계절적인 온난화가 겨울 곡물들의 성장을 진행시키고 있어서 서부의 많은 농업 지역들에 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 브라질: 콩 농가가 우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의 많은 곳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목화 수확과 기타 포장 작업을 지원해주고 있었다. 여름의 온난함이 건조를 동반하여 성숙한 작물들의 건조를 돕고 있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목화 수확은 9월 6일 현재 99%로 거의 완결되었다. 먼 남쪽은, 소나기 (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북쪽으로 확장되어 마토 그로소 도 술과 미나스 게라이스 남부에 있는 인근 지역들은 물론이고, 리오 그란데 도 술의 북부에서부터 상 파울로까지 내렸다. 남부에 내린 비는 2차 작물 옥수수와 조기 밀 수확에는 시기적절하지 않았지만 그 수분은 곧 심게 될 주요 계절 여름작물들에게는 결국 좋을 것이다. 파라나에서는 2차 작물 옥수수가 9월 2일 현재 98% 수확되었다고 보고되었고 밀은 12 퍼센트 수확되었다고 한다. 덧붙여서 1차 작물 옥수수는 3% 파종되었다. 한편,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9월 5일 현재 밀의 41 퍼센트가 개화기에서 종실 비대 단계에 있었다. 남브라질의 그 밖의 지역으로는 상 파울로에서 비가 사탕수수의 이른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고 미나스 게라이스에서는 커피의 개화를 촉발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브라질은 좀 더 시원한 날씨가 우세했는데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밤 최저 기온이 5° C 이하로 떨어졌으나 결빙은 보고되지 않았다.